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손

에스터

8장 에스터 9장, 10장 : 에필로그

01

플롯구조

“문학성을 띤 작품으로 살펴보면 플롯구조

7 에필로그(9:20-10:3)

에스터의 명령으로 부림절을 지킴

에스터 9:20-10:3은 이야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부림절의 기원과 모르드개의 후일담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에스터는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구조를 통해 놀라운 반전을 보여준다.

02

각 절 설명

9장

▶ 20-32절은 부림절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20절은 이런 가운데 모르드개가 공식적으로 글을 써서 유대인들에게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내라는 규례를 보냈다. 21-22절은 모르드개가 쓴 글이고 22절은 명절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로 기념하여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였다. 명절을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들 모두가 기념하고 즐거야 하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22절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토브) 날이 되었으니’라는 표현은 (시 30: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와 매우 비슷하다. 백성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게 된 축제가 모르드개에 의해 하나의 공식적인 명절이 된 것이다.

20절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어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22절 이 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23절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 24-28절은 부림절이라고 불리게 된 원인과 부림절의 기원을 다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기념에 의하면 하만의 악한 행동과 에스더의 용감한 행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부림절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부르를 뽑은 것에서 이름을 따서 부림절이라고 하였다.

24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 29-32절은 부림절을 지키라고 에스더가 명령했다는 것이다. 29절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름이 둘 다 나오나 '쓰다'가 3인칭 여성 단수형이기 때문에 주연은 에스더이다. 여기서 다시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금식을 명령한 것과 유다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 일어나기 위해 부르짖음과 금식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기념을 에스더의 명령을 통해 더욱 굳게 만들었고 책에까지 기록되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전체 이야기 전에서 이 부분이니 에스더의 권위가 가장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제 에스더는 아무 욕심도 세상도 모르던 악한 소녀가 아닌 한 민족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왕후로 서게 된 것이다.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30절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백이십칠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31절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 이더라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 1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는 언급은 1:1과 인클루지오를 이루어 아하수에로 왕때 페르시아가 번성하였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번영의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암시로 해석할 수 있다. 2절의 구문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왕의 이야기를 정리할 때 사용하는 문구와 동일하며 이런 표현을 통해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한편으로는 모르드개를 언급하므로 그 후에도 계속해서 모르드개가 왕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과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3절은 모르드개에 대한 평가로 저자는 직접묘사를 통해 모르드개가 왕의 다음 자리에 오르고 유다인 중에 존경과 사랑을 받고 유다인을 위해 애쓰고 유다인이 보존되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그는 페르시아에서 유다인의 지도자이자 영웅으로 평가되었다.

10장

1절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2절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절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 마치는 말

구약의 책들 중 에스더서는 그 어느 책보다도 오늘날 교회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오늘날 교회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에스더의 시대만큼이나 기독교와 복음에 대하여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바라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확실한 이적과 증표들로 세상의 모든 불신을 해소해 주고 믿는 자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사역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고히 한다. 하나님께서는 보일 듯 말 듯 은밀한 곳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신다고 해서 주님의 주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신다. 다만 사역 방식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즉,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